

쌍용차의 신형 코란도는 카메라와 레이더로 주변을 스캐닝해 위험 상황에서 빠르게 차량을 제어해 탑승자 안전을 확보해주는 딥 컨트롤 기술을 갖췄다. 사진제공 | 쌍용차

첨단기술 무장한 신형 코란도 안전에 감성, 공간까지 뷰티풀

쌍용차 코란도는 45년 역사를 지닌 국내 최장수 브랜드다. 코란도의 전신이자 1세대 모델인 신진지프(1974년)를 시작으로 1983년 2세대, 1996년 3세대, 2011년 4세대 코란도C, 2017년 5세대 뉴 스타일 코란도C, 그리고 올해 3월 출시한 6세대 뷰:티풀 코란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진화했다. 특히 8년 만에 재탄생한 6세대 코란도는 쌍용의 미래 기술력이 집약된 혁신적인 모델이다.

●화려한 디지털 인터페이스 적용된 실내

코란도의 최대 강점은 완전히 새로워진 디지털 인터페이스 블레이즈콕핏(Blaze Cockpit)이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 대신 10.25인치의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장착해 젊고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더했다. 기분에 따라 실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인피니티 무드램프도 장착했다. 34가지 컬러 중 선택 가능하다. 센터페시아에는 9인치 대화면 AVN 스크린이 있어 HD급 고화질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이 가능하다.

●첨단 차량제어기술, 딥 컨트롤

신형 코란도에는 경쟁 준중형 SUV를 뛰어넘는 차량 제어기술인 딥 컨트롤을 갖추고 있다. 딥 컨트롤은 카메라와 레이더로 차량 주변을 스캐닝해 위험 상황에서 빠르게 차량을 제어해 탑승자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종·횡 방향 보조 제어를 제공한다. 앞선 차량을 감지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인식해 차로 한 가운데로 주행한다.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접근할 경우 센서가 파악해 탑승객에게 경고해 안전성을 높이는 탑승객하차보조(EAF) 기술도 동급 최초로 적용했다. 엔트리 모델에도 긴급제동보조(AEB), 차선 유지보조(LKA), 앞차 출발 알림(FVSA), 부주의 운전경보(DAA), 안전거리 경보(SDA) 등을 기본 장착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동급 최대 적재공간

SUV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적재공간도 동급 최대다. 551L(VDA, 독일자동차산업협회표준 기준)의 적재공간은 골프백 4개와 여행용 손가방 4개를 동시에 수납할 수 있다. 2단 매직트레이도 있어, 주행 중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격벽으로 활용 가능하다. 매직트레이 아래에는 19cm(상하폭 기준)의 럭키스페이스가 조성, 부피가 작은 짐도 깔끔하게 분리 수납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 볼보 크로스컨트리(V60) 타보니…



세단 같은 승차감 '필소굿'

〈Feel So Good〉

SUV와 승용차, 왜건의 장점을 조합한 크로스오버 차량인 볼보 신형 크로스컨트리(V60). 볼보 브랜드의 60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제작한 2세대 모델이다. 오프로드에서도 자유로운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주행이나 코너링에서는 안정적 몸놀림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 볼보자동차 코리아

기존 왜건 모델에 SUV·세단 장점 더해 오프로드 척척…고속주행 능력도 일품

볼보 신형 크로스컨트리(V60)는 SUV와 승용차, 에스테이트(왜건)의 장점을 조합한 크로스오버 차량이다. 왜건 모델인 V60의 파생 모델이자, 현재 볼보 브랜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0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제작한 2세대 모델이다. 세단의 주행 감성과 왜건의 활용성, SUV의 주행 능력을 두루 갖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형 크로스컨트리(V60)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강원도 원주를 왕복하는 140km 구간에서 시승했다.

●왜건이 아니다, 크로스컨트리다

크로스컨트리(V60)는 기존 왜건 모델인 V60을 보다 더 SUV에 가깝게 진화시킨 모델이다. V60보다 74mm 높은 지상고(210mm), 크로스컨트리 전용 투어링 섀시와 서스펜션을 적용해 가파른 경사나 지면이 고르지 못한 오프로드에서도 자유로운 주행이 가능하다.

파워트레인도 강력하다. 국내에 들여온 2세대 모델은 직렬 4기통 T5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기어트로닉 변속기로 최고출력 254마력(5500rpm), 최대토크 35.7kg.m를 발휘한다. 최대토크가 1500~4800rpm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어느 속도에서나 넉넉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지상고가 승용차나 왜건 보다 높아 시야 확보가 좋으면서도 고속주행이나 코너링에서는 세단처럼 안정적인 몸놀림을 보여준다는 점 역시 돋보인다. 묵직하지만 버겁지 않고, 단단하면서도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균형잡힌 주행 성능이 꽤나 매력적이다.

스타일도 진일보했다. 볼보의 신형 SUV인 XC90이나 S90 세단에서 선보인 디자인 변화를 크로스컨트리(V60)에서도 느낄 수 있다. S60에서 사용된 디자인 언어를 변주해 전면부에 토르의 망치를 형상화한 LED 헤드램프와 새로 디자인된 그릴을 세팅, 전반적인 인상을 더욱 럭셔리해 보이도록 만들었다.

볼보, 신형 크로스컨트리(V60) 주요 제원

	CrossCountry(V60) T5 AWD	CrossCountry(V60) T5 AWD PRO
엔진형식	드라이브E 파워트레인(직렬 4기통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	
구동형식	AWD	
연료탱크(L)	60	
배기량(cc)	1969	
최고출력(ps/rpm)	254/5500	
최대토크(kg·m/rpm)	35.7/1500~4800	
변속기	8단 자동 기어트로닉	
복합연비(km/L)	10.1(도심 8.8, 고속도로 12.4)	
최고속도(km/h)	230	
0-100 km/h(초)	6.8	
판매가격(VAT포함)	5280만원	5890만원

디자인 변화의 하이라이트는 후면부 디자인이다. 세로형 리어램프와 스포일러에 통합된 브레이크 라이트는 왜건의 올드한 느낌을 지우고 미래지향적인 신형 SUV처럼 보이게 한다.

미니멀한 실내 디자인과 최신 커넥티비티도 매력 요소다. 기존 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스웨디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최신 트렌드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여유와 안락함을 함께 느끼게 하는 대시보드와 중앙 콘솔의 우드 트림(드리프트 우드 소재) 마감,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 등은 고급 공예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어떤 길에서도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휴식과 여행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다. 또한 태블릿 PC를 연상시키는 세로형 9인치 센터 콘솔 디스플레이로 마치 스마트폰처럼 차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적재능력도 발군이다. 기본 트렁크가 529리터, 2열 좌석을 모두 접으면 최대 1441리터까지 확장된다. SUV 모델인 XC60(기본:505리터, 최대 1432리터)보다도 넓다. 발을 움직여 트렁크 뒷문을 여는 핸즈프리 테일게이트도 기본 옵션이다.

제천 | sereno@donga.com

롭스 이태원점 오픈 1주년 프로모션



헬스&뷰티(H&B) 스토어 롭스가 31일까지 서울 이태원점 오픈 1주년 기념 프로모션(사진)을 진행한다. 롯데 엘포인트 회원이 롭스 이태원점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2000원을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일반 고객에게도 3만 원 이상 구매 시 아벤느 젤 클렌저와 앤서나인틴 크림, 바난겐 샤워크림과 바디로션 등 2종 세트 중 하나를 제공한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밀리 마쥬 립틴트와 총알퍼프를 증정한다.

NS홈쇼핑 NS신뢰방송 자문위 발족



NS홈쇼핑이 NS신뢰방송 자문위원회(사진)를 발족했다. 주요 상품 방송 광고에 관한 사전 검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명 요청 사항에 관한 의견제시, 사전심의 담당자 및 영업직군 대상 집체 교육을 담당한다. 강일준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유현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남개원 서원대 바이오코스메스틱학과 교수, 김현정 분당차병원 피부과 교수 등 4명으로 구성했다. 위촉 기간은 2년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허리·목·무릎 통증을 운동으로 한번에.. 전자동 거꾸리!

◆ 허리통증...운동.非수술 단계별 치료

현대인들의 척추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통받고 있다.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은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적어지는 중장년들은 근력이 감소됨에 따라 경·척추 질환자가 늘고 있다. 척추는 기와집의 대들보에 비교될 정도로 우리 몸에 있 어 중요한 구조물이다. 이러한 경·척추가 무너질경우 통증은 물론 디스크나 측만증 등과 함께 심할 경우 전신마비까지 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척추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척추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척추가 받는 중력의 힘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자동 전동 거꾸리는 이러한 중력의 힘을 반대로 이용하여 척추를 견인해 주어 교정하고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 주어 척추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자동 전동 거꾸리는 척추 건강 개선 뿐만 아니라 전신 스트레칭 효과도 볼 수 있고 하체에 몰려 있는 혈액을 머리까지 공급하여 혈액 순환을 원할하게 해준다.



세계여성발명대회 은상

MADE IN KOREA



3단계 자동운동기능 장착
세계최초 특허 등록 10-1884157
[K.B.I.Z -1억 생산물배상 책임보험가입]
실버 전용 자동전동거꾸리

관계자는 "이번 새롭게 출시된 자동 전동 거꾸리는 기존 수동 방식의 거꾸리와는 다른 자동 방식으로 각도 조절이 용이하고 핸디형 리모컨으로 쉽게 초보자나 노약자분들이 혼자 집에서 안전하게 운동 할 수 가 있다. 또한 서서 시작 하는 방식으로 혈압이 있는 환자의 사용에 무리가 없고 안정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세련된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며 경제성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하루 5분씩만 거꾸리 운동에 투자 한다면 경·척추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국내유일 3단계 자동 프로그램형 전동 거꾸리는 100% 국내제작으로 1년 무상 A/S되며 1만개 판매 감사기념으로 2019년형 최초 40% 할인행사와 5개월 무이자로 3일 무료체험과 20만원 상당한 사은품을 30분에게만 진행한다.

문의전화 070-4914-5205

다리의 뭉침, 쥐가 난다면 발목펌프운동 추천~

◆ '누구나 쉽게 누워서 하는 이어돎'

혈액순환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이어돎'은 우리 몸 혈관의 80% 이상이 모여 있는 발목을 자극해 혈액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도와 주는기구다. '이어돎'이란 '막힘없이 이어서 도는 순환'의 순우리말이다. 발목펌프 운동의 시작은 신장병과 당뇨병으로 고통을 앓던 일본인 이나가키씨가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가 물을 빨아올리는 힘을 관찰하다 고안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발목펌프 운동은 발목의 혈관을 두드려줌으로써 혈관의 수축/이완을 도와 아래쪽에 모여 있는 노폐물과 정맥혈을 심장쪽으로 운반시켜 혈액이 순환되는 원리로 몸 속에 고여 있던 노폐물을 정화와 피로를 풀어준다. 특히, 발저림으로 잠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고생하 는분 들이나, 저녁에만 발이 시리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운동이 부족한 분들이 사용하여 각종 성인병까지 치유가 된 사례가 있는 책이 출판 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혈액순환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이어돎'이 출시되었다.



MADE IN KOREA

7단계 자동운동기능 발목펌프운동기

관계자는 "타제품과는 다르게 리모컨이 내장되어 편하게 누워서도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저소음, 저진동으로 바닥 울림이나 층간 소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7가지 운동 패턴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 고 전했다. '이어돎' 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목펌프 운동은 하루 중 아침 공복시 및 취침 전 2~3회 정도 무릎을 펴고하면 효과적이다. 초보자는 시작할때 강약 조절 버튼으로 처음에는 약으로 놓고 며칠간 사용하다가 점차 강도를 높여 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어돎' 관계자는 "2주년 출시기념으로 3일간 무료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 후 불만족시 100% 전액 환불을 실시한다"고 한다.

문의전화 070-4914-5205